

(주)삼호유황오리 이세종 대표, 어려운 이웃에 생오리 1,500마리 후원



(주)삼호유황오리 이세종 대표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 이웃에게 2,250만원 상당의 생오리 1,500마리를 후원했다.

이 대표의 생오리 기증은 올해 7월 2,000마리에 이어 두 번째 기부로 지난 10월 24일 독거노인 및 어려운 세대의 건강관리를 위해 유황오리 1,500마리를 기부했다.

이 대표가 광주 남구에 유황오리를 기부하게 된 것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한 직원의 효심에 감명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직원의 어머니는 남구 월산4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대표는 부하 직원의 어머니를 비롯해 남구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틈틈이 유황오리를 기부해 오고 있다.

이번에 기부된 유황오리 1,500마리는 월산4동과 남구 자원봉사센터에 각각 배송되었으며, 독거노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었다.

이세종 대표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언제든지 발 벗고 나서겠다”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삼호유황오리는 전북 정읍에 위치해 있으며, 이 대표는 7년 전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간 3만 마리 가량의 생오리를 기부해 오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최진경 기자 [2014. 10. 23]



다향오리,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다향 팝업샵’ 운영



다향오리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린 ‘제11회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에서 ‘다향 팝업샵’을 운영했다.

“다향 팝업샵은 축제를 즐기는 동안 출출해진 소비자들이 영양만점 다향오리의 간편하고 맛있는 신제품들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체험할 수 있는 특별 부스”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다향오리는 베스트셀러 ‘오리 훈제 슬라이스’를 비롯해, 쌀쌀한 가을 날씨에 안성맞춤인 따끈한 ‘다향 삼계탕’, 휴대가 간편해

잔디밭에서도 언제든지 꺼내먹을 수 있는 영양 간식 ‘나는 오리육포다’도 선보였다.

다향 팝업샵에서는 소비자 대상 특별 이벤트 ‘5.2초를 잡아라’ 게임도 함께 진행했다. 해당 이벤트는 다향오리의 ‘오리’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스피드 게임으로, 준비된 타이머 기계의 스톱 버튼을 눌러 정확히 5.2초에 멈춘 참가자에게 국내 유명 전시회 티켓이 경품으로 제공되었다.

이와 더불어, 페스티벌 기간 동안 다향오리 공식 페이스북 이벤트를 진행했다.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흐르는 가을철, 다향 오리고기가 좋은 이유를 댓글로 남긴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인에게 다향오리 선물세트를 증정했다.

다향 통합 기획실 박은희 상무는 “다향오리는 이번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비롯해 젊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각종 페스티벌에서 고객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이 가까이 다가가 소비자 마음 속 No.1 오리고기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4. 10. 02]

[농협사료, 축종별 대표농가 선정] 오리부문 / 전부식 사방농장 대표 <경남 진주>



오리 2만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유창계사에서 지난해 6회에 걸쳐 모두 10만3,865마리를 출하했다. 출하성적은 평균체중 3.45 kg이었으며, 사료요구율은 1.91을 기록했다. 2013년 전국 오리 농가의 평균 사료요구율은 2.20 정도였다. 새끼오리를 입식하면 일주일 동안은 환기·온도·급수·급이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해 밤낮을 함께 지냈다. 이때 일부 새끼오리는 무리에서 뒤쳐져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런 개체를 발견하면 육추상자에서 별도로 관리해 다른 개체와 똑같이 크도록 조치했다. 오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사양관리의 중점을 뒀다. 계사 안을 청결하게 유지해 질병발생을 예방하고 항상 신선한 사료와 깨끗한 공기·물을 공급, 적은 사료로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2011년 HACCP과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인증을 획득했다.

농민신문 [2014. 10. 17]